



#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 경남지부

641-010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(4층) ☎055-275-5646, unjjang@gmail.com

문서번호 택시경남 2011-110  
시행일자 2011. 06. 14.  
반 음 (합)진일, 제일택시  
참 조 대표이사

## 제 목 양도양수 즉각 중지 요청

1.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정착, 월 209시간 보장, 최저임금 쟁취!

2. 노동조합의 반대, 미협의를 등 아직 해결되지 아니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화성교통 양도양수는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. 귀 회사의 이번 행위는 노동조합 탄압이며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한 도전으로서 결단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. 귀 회사의 이번 행위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기 이전에, 노조의 쟁의행위 역시 합법적임을 인정해야 합니다.

3. 그렇다면 왜 노조를 부수고 활동을 억압하는지? 귀사는 이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. 면허사업이므로 양도양수로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면 큰 오관입니다. 조합원의 고용불안, 생존권을 짓밟고 무리수를 써가면서 운송사업을 할 이유가 없지요. 탈법과 불법, 부실경영, 운송사업자의 탐욕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김미령 대표이사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며, 반드시 그 댓가를 치루도록 할 것입니다.

4. 그러니 대표이사는 양도양수를 철회하고 즉시 원상회복하길 바랍니다. 만약 경남지부의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탄압과 강압적으로 위력을 행사한다면 그 결말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. 같은 지역의 택시회사 대표이사로서 노사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앞장서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오히려 전쟁을 선포하다니, 안타까울 뿐입니다.

5. 노동조합에게 치욕적인 굴욕을 강요하고 몇 십년 일한 일터를 빼앗고 그것도 강제로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, 우리는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. 수습기간 1월, 법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을 재고용하겠다니, 이게 어느나라 법입니까. 노예, 노비 취급하다

니 천벌을 받을 일입니다. 막가파식의 양도양수, 부도덕한 사람들이 하는 기업인수합병으로 택시 선진화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

6. 기업운영의 기본은 고용입니다. 막가파식의 양도양수로 정든 일터를 잃게 된 조합원들의 심정을 헤아려 본 적이 없겠지요.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면 조합원과 그 가족의 생계는 누가 책임집니까. 노동자의 처지를 외면하고 고용불안을 야기시킨 이번 양도양수는 절대 용납될 수 없으므로 즉각 철회를 바랍니다.

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 경남지부 박인규

